

경제

구조조정·급여 삭감 속 생활 물가 인상 대기

서민가계 '먹구름'

고용시장 급속 악화 ... 새 일자리 얻기도 힘들어

경기가 갈수록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생활물가가 들쭉거릴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물가전망 3%대 대세=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내년 소비자 물가전망은 3%대가 많다. 정부가 3% 내외를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3%를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1월에 수저치를 낼 예정이지만 지난 11월 내놓은 2009년 경제전망에서는 3.6%로 예측했다. 가장 최근에 전망치를 발표한 금융연구원은 3.1%를 제시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 기관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3.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민간연구소들도 3%대 대체를 이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3.2%, LG경제연구소가 3.7%, 현대경제연구소가 3.3%를 내놓았고 한국경제연구원 유일하게 2.5%로 2%대를 제시했다.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4.7~5.0%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 비해 보면 높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의 높은 물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감물가는 엄청난 수준이다.

올해 국제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개월 동안 5~6%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또 오를 경우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는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별이는 시원찮을 듯=물가는 오르는 반면 소득은 빈약해질 공산이 크다. 공무원들은 일제감치 보수와 정원을 동결해버렸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공공부문이 보수 삭감으로 솔선수범했으므로 현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역시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공기업들은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면서 급여동결은 물론 실직의 공포에 떨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서 보듯 사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급여

삭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 '하늘의 별따기'=정부가 내년 경제 운용의 초점을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에 두고 있지만 대내의 여건을 고려할 때 고용여건과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즉 정규직은 줄어들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문에서 잠시 일거리를 갖는 비정규직만 대거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이 대거 퇴출되면서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메우게 되고 민간기업 또한 생산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서민층에 대한 고용안정과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저점으로 치달으면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내년 상반기에 실업자가 올해 75만명보다 13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특히 금융위기로 갑작스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마저 급속히 늘고 있어 내년도 고용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류생산 준비 중

경기불황 여파로 2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공장이 장기 휴무에 들어가면서 이 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 섰다. 혼류 생산설비 공사를 위해 비닐에 싸인 섀시페 차량들이 이사를 앞둔 듯 어수선하고 울썸썸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성차 업체 보증 재원 부품업체 유동성 '숨통'

자동차 감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들에 유동성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완성차업체의 재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완성차업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보증을 해 줌으로써 부품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모델의 골자다. 25일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놓고 양 부처가 합동으로 구성된 실물·금융융합지원단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구상했던 방안은 중소기업청

이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를 기업은행과 현대차그룹이 조성한 상생협력펀드에 출자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 협력업체들보다 다른 완성차업체들의 협력업체들이 감산 등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부 당국자는 "현대·기아차와 GM대우, 르노삼성차 등이 각자 신보에 출연하면 이 자금으로 보증을 제공해 부품업체에 자금을 융통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출연은 강제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각 완성차업체들이 출연한 자금은 자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쓰여져 되며 일단 출연한 자금은 위기가 끝나더라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운용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주주 상하이자동차의 철수 검토와 12월 급여의 지불이 연기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는 출연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쌍용차는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경우 퇴출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방언이 추진했다. 정부 당국은 쌍용차에만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250여개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완성차업체들도 보유 현금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완성차업체들은 내년 초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업은행과의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 확대를 타진하고 나선 상태다. /연합뉴스

63만 가구 근로 장려금 최대 120만원 지급

국세청 '근로 장려 세제' 사상 첫 시행 내년 5월부터 한달간 신청 ... 9월 지급

국세청은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아 저소득근로자가 가구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제근거가 마련돼 내년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주택이면서 자동차·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

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최고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급액은 최고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다. 수급요건도 완화돼 부양자녀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에서 1인 이상 부양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요건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또는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보유시로, 재산요건은 전세금·예금 등 합계액 1억원 내외에서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

급가구는 당초 26만가구 1천300억원에서 63만가구 4천7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덩달아 커져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며 1천2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천700만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부실·불성실 상장법인 '퇴출'

증시제도 개선안 ... 내년 실질심사제 도입

내년부터 상습적인 공시 위반과 횡령·배임 등 부실, 불성실 상장법인에 대한 퇴출이 강화된다. 또 무역면 주식(액면가 0원)과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전자증권제도 등이 도입되고 자본금제도가 폐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증권선물거래소는 내년 2월부터 문제가 있는 상장법인들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도입한다.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무역면주식·전자투표·전자증권 도입, 최저자본금제 폐지=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액면가 '0원'인 주식이 탄생한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무역면 주식으로 발행하거나 기존 액면주식을 모두 무역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다. 신주발행시 발행가가 액면가와는 무관하게 실질가치에 따라 정해지고 있고, 유상증자 때 시장약하나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액면가 이하로 발행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해 기업들의 자본조달에 액면가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거래소는 무역면주식 도입으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자본감소·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이나 자본운용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기업의 IT 인프라 정도에 따라 주총 의결권을 인터넷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주식이나 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권리의 양도나 담보설정,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등록제도도 도입된다. 일종의 전자증권인 셈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내년 2월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된다. 이로써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간 경영이 허용되는 등 자본법 시대 개막된다. /연합뉴스

채권안정 펀드

내년 4조 투입

정부가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내년 초에 4조원대 자금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채권펀드의 통합 운용사인 산은자산운용측은 25일 1차 5조원 규모로 17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 펀드가 전날까지 3천여억원이 채권담보보증권(CBO) 3천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발행채권 1천억원 등 약 4천억원의 집행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유가 '1배럴=56달러'

국내 경제전망 ... 환율 1,190원

국내 경제연구소 소장들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의 최대 변수가 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평균 1천190원, 유가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를 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56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하는 '월간전경련'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14개 기관경제연구소 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전망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경제연구소장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최대 및 최소 값 제외)을 2.2%로 전망, 4.99%였던 지난해에 비해 2.7%p 이상 낮게 전망했다. 경제연구소장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가계·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을 꼽았고, 국내 및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지속, 고용불안 속의 대량실업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응답자 전원은 내년 우리 경제가 '매우

악화' 또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응답자의 약 70%는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될 것이며, 국내경기는 이보다 좀 늦은 2010년 상반기에나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자들은 내년엔 역점을 뒀아 할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경기부양책 마련'을 꼽았고, 이어 금융시장 안정,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 차단, 일관되고 선제적인 경제정책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 순위를 차지했다. 경제연구소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뉴스에 관한 조사에서는 단연 '글로벌 금융위기'를 톱뉴스로 선정했다. 2위는 원·달러 환율 폭등(원화가치 하락), 3위는 금융시장 혼돈, 4위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 급등락, 5위는 실물경기 침체 등이었다. 또 6~10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부동산가격 급락 등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500대 기업 직원 채용

올보다 16.5% 줄인다

1만8천여명 계획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취업문도 좁아질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잡코리아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 500대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된 기업(231개사)의 일자리는 1만8천845명으로 기업들이 올해 채용한 규모(2만2천566명)보다 16.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11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계획을 확정된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채용감소폭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30대 기업이 10.6%, 31~100위 기업이 13.8%, 101~300위 기업이 12.5%씩 내년도 채용인원을 줄일 계획인 데 비해, 301~500위 기업은 43.1%나 채용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호텔·연말'(-1.8%), '조선'(-3.2%), '전자·전기'(-4.9%), '정보통신'(-6.8%) 업종은 채용규모 감소폭이 한자릿수인데 비해, '자동차'(-50.3%), '금융'(-41.9%), '철강·기계'(-35.0%) 업종은 많게는 절반 가까이 채용인원을 줄일 계획이다. 응답기업들의 21.5%가 필요인원보다 신입직원을 더 뽑을 계획이며, 20.9%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차 보험료 5천원 인하

내년에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5천원 가량 줄어든다. 삼통차와 사통차도 오토바이로 분류돼 사고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5일 발표한 '200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율이 3.4%에서 1.0%로 낮아지면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천원 인하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헝스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운데 운전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에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거둬 재원으로 쓴다. 불이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사륜차나 삼륜차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득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Department, Position, Salary/Experience,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roles like HR, IT, and various administrative positions.